



행사스케치

2011 전국영양사학술대회

2011 전국영양사학술대회 개최 (주)코리아더카드, 식품·기기전시회 참여

글·사진 : 편집부

- ① 다향오리 독립부스를 가득메운 관람객들
- ② 출서서 오리훈제를 시식하는 관람객들
- ③ 제 18회 식품·기기 전시회
- ④ 영상홍보에 주목하며 관심을 보이는 관람객들
- ⑤ 증정행사로 나눠준 떡갈비, 홍보책자 및 레시피공모 전단지
- ⑥ 증



2011 전국영양사학술대회가 ‘영양·식생활의 멘토, 영양사!’ 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7월 21~22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됐다.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의 산업체, 학교, 병원,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영양사, 영양학자 및 관계자 5천 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부대행사로 올해 18회를 맞은 식품·기기전시회가 컨벤션 센터 1층에서 개최 됐는데, 우리 협회 회원사인 (주)코리아더카드(대표 박영진)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코리아더카드 독립부스 전경

오리업계서 유일하게 전시회에 참여한 코리아더카드는 녹차먹여 키운 ‘다향오리’의 브랜드입지 굳히기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오리 훈제 시식행사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으며 국내산 오리고기의 효능을 설명, 우수한 맛은 물론 영양학적 우수성까지 홍보하였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고 맛있게 즐겨 먹을 수 있는 오리떡갈비를 참관객들에게 증정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참관객들은 코리아더카드의 독립부스를 가득 메울 정도로 다향오리의 홍보행사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코리아더카드는 조리가 용이한 오리떡갈비를 이용한 급식 레시피 개발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고 7월 31일까지 신청을 마치고, 레시피 공모를 오는 8월 31일 마감할 계획이다. 이에 코리아더카드를 찾은 참관객들에게 레시피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기재된 전단지들을 함께 나눠주며 홍보했다.

㈜코리아더카드는 국내 오리업계 대표 선두주자로서 전국의 다양한 식품 전시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여 많은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 국내산 오리고기의 우수한 맛과 영양학적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앞장서고

있을 뿐 아니라 철저한 위생관리와 엄격한 체제를 갖춘 자회사 팜덕(대표 문순금) 공장의 영상홍보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오리고기의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홍보는 다향오리의 브랜드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물론, 더불어 국내 모든 오리산업의 더 큰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 KDA 홍보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원으로 우리 농식품 안전 교육·홍보, 우리 축산물 Good Buy 캠페인, 우유 교육·홍보, 영양의 날 균형 잡힌 한식 밥상으로 건강체중을 ‘캠페인 홍보가 이뤄졌다.